

행정부지사 명퇴... 도정공백 우려

4일 도의회 예결특위서 밝혀 양병우 의원 "도정 텅 비는 꼴" "매뉴얼·시스템 갖춰져 있다"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4일 제주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말 명예퇴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대권도전을 공식화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양병우 의원은 "도정 텅 비는 꼴"이라며 "매뉴얼·시스템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대권도전을 공식화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양병우 의원은 "도정 텅 비는 꼴"이라며 "매뉴얼·시스템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 "코로나19로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책임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어떤 준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또 "행정부지사가 교체되고 정무직이 사퇴하면 제주도정은 텅비는 꼴이 될 것이라는 도민들의 우려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민선 7기 제주도정 정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지사 중심으로 대응체제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부지사는 "매뉴얼은

향상 잘 준비돼 있고, 제주도는 체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서 "각 실국장들이 연륜이 있고, 도의원들이 항상 모니터링해서 수시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도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도정집권의 맥이 빠졌는데, (행정부지사 명예퇴직으로) 예결위에서도 답변이 공명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지사가 없어도 책임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후 지사가 사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다해기자 dhkano@halla.com

"4·3 유족과 제주도민께 송구하고 감사"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제주포럼 출범식서 피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주에서 지지 모임을 출범하고 본격 세월에 나섰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제주포럼' (이하 신복지제주포럼)은 4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도내 당 내외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한 신복지제주포럼의 공동대표로는 국회 오영훈(제주시) 의원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희현 제주도의원, 석용스님(전 제주불교연합회장) 등이 맡았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원으로는 의장인 좌남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강민숙,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이송아 의원 등이 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상임고문으로는 국회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이종천 전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수석부총회장이 위촉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있

으면서 통과시킨 422건의 법률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법률은 '제주 4·3특별법'으로, 무려 73년의 세월을 인고하며 기다려주신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면서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완성을 향한 새로운 시작으로 8월 말에 나올 '과거사 배보상에 관한 연구'에 유족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제주도의 지도자들과 유족들의 크나큰 결실에 힘입어 역사의 매듭을 완전히 푸는 날까지,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제주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와 미래의 섬으로 거듭나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 최대 수출품이 광어였는데 지난해에 반도체였다"며 "제주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4일 제주시 한라아트홀에서 열린 신복지제주포럼 출범식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과과학기술단에 상주하는 청년들이 창출하는 수익이 3조원을 넘어서고, 제주의 재생에너지 의존율은 전국 평균 2배나 높다. 탄소없는 세상을 제주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주는 친환경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다해기자

"노무현 정신 계승 사람답게 사는 세상"

김두관 지지모임 '노정연 제주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된 김두관 국회의원의 지지모임 격인 노무현 정신 계승연대 제주본부(이하 노정연 제주본부)가 지난 5일 출범했다. 노정연 제주본부는 이날 오후 6시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김 의원과 송재호 국회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노정연 제주본부 공동 상임고문은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과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도민본부 사무총장, 이병헌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맡았다. 또 공동대표로 송창권 제주도의원과 고경남 전 예코협동조합 이사장, 양경호 전 한국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하성용 민주당 제주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철 코너스톤 코리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이민국 개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와 이송아, 고태순, 박호형, 고현수, 정민구, 강성의 제주도의

원 등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김두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의 큰 정치를 보여줬다"며 "최근 수도권외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 노 대통령이 추진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혁신도시 정책 등이 잘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정연 제주본부를 포함해 전국의 본부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열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범식에서 앞서 김 의원은 원희룡 지사와 만나 제주도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면서 도민들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지역에 우선 집단 면적이 형성



5일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노정연 제주본부 출범식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된다면,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지역에 대한 우선 접종을 건의해 줘도 민들의 기대와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제주도를 통해서 코로나19 시대에 경제활동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범케이스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상민기자



선거의 계절 민생은 '뒷전' 제주도의회

첫 추경 심사에 의원석 '덜덜' 민주당 의원들 이낙연 포럼형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심사 첫날부터 소속 의원 상당수가 자리를 비우면서 도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는 지난 4일

부터 오는 8일까지 3일 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지난 3일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증액해 계산된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칼날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예결특위 위

원은 채 10명도 되지 않았다. 특히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오후 심사에서 문종태 위원장마저 자리를 비워 강철남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 교육의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날 회의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철남·강성규·임정은 의원,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김황국 의원, 무소속 양병우 의원과 김창식 교육의원 등만 참석해 진행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사진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가 이낙연 전 총리 지지 모임인 '신복지 제주포럼' 출범식에 참석한 가운데, 이들 중엔 몇몇 예결특위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날 오전 예결특위 회의에서 의원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권 선언에 이어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명예퇴직 의사를 밝히자 도정공백을 우려한 바 있어 도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강다해기자

"민속예술 청소년 온라인 문화한마당" 공모

공모대상 - 제주도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개인 및 단체

공모분야

연번	부문	소요시간	내용
1	풍물(개인)	3분 이내	민속전통악기 (가야금, 장구, 북, 태평소, 대금 등)
2	민요		전통민요
3	동화구연		제주관련 신화·전설
4	풍물단체팀	10분 이내	민속전통악기 (가야금, 장구, 북, 태평소, 대금 등)
5	시낭송	1~2분 이내	제주관련 '시'

응모기간 2021. 6. 10.(목) ~ 2021. 7. 30.(금) 09:00~18:00(토·일요일 제외)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확인 필수 (선착순 400명)

응모방법 - 모든 부문은 직접 모바일 영상으로 촬영하여 원본 및 참가신청서 접수
- 참가신청서: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지회 자료실(다문로드)
- 1인 1부문에 한해 시상
- 제출서류: 동영상 및 참가신청서(웹하드(ID: jj0302 / PW: jeju0302))

참가자 및 입선특전 -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증정
- 부문별 3명 특별상 시상(구분: 초등부(2) / 중·고등부(1))
- 부문별 특별상 영상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 게재
- 결과발표: 특별상에 한하여 개별통지

유의사항 - 참가자의 초상권 등에 관한 모든 문제는 참가자의 책임으로 함
- 응모된 원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성과품(시상영상)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시합자에게 있어 활용될 수 있음

문의처 ☎ 064-752-030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즌 전에 미리 던져둘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선 가지 해결!
- + 원터치&조간편 길이 조절,
- + 가지에 걸고 고정만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지,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줄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풍 비슷해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달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환경 내일이면 늦으리"

(주)대승

대통령 표창수상 환경경영시스템 14001 인증
환경부장관 표창수상 미국 FDA Medical device
한국 신지식인 선정 (중소기업)

친환경 제품 생산 수출업

디톡스 풋패치(파스형)
운동 전후, 피로, 통증완화, 혈액순환, 불면증 등

탈취제(식물성 인·축 무해)
광범위 악취 색, 동물농장, 축사, 돈사, 계사,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장, 하수, 모기서식처, 퇴비발효 적정, 등·어 가공 작업장 등

농업용(미래의 식물방어 생산물질)
종합영양제, 응애-(알), 총채, 깎지, 수세회복

농업용 광어목초액 액비
농업용 활성탄(가스미 숲)

http://www.dsbio.net
본사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3길 13-1
Tel : (064)757-3477, 782-6979
(주)대승팀장(문의사항) : 010-7542-3477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一良 辛酉一良 辛酉一良 辛酉一良 辛酉一良 辛酉一良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정진기식 수도배관 누출정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